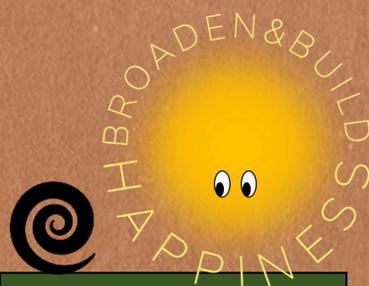


성격

“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.” -랄프 에머슨-

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□	□	□	□ 1	□ 2	□ 3	□ 4
			나의 성격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?	상상력이 풍부한 편인가요? 최근 한 상상 중, 가장 영똥한 것은 무엇이었나요?	반복되는 일을 좋아하나요? 새로운 일을 더 좋아하나요?	실패하는 것과 도전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나를 더 기분 나쁘게 하나요?
□ 5	□ 6	□ 7	□ 8	□ 9	□ 10	□ 11
나는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편인가요? 마감 효과를 노리는 편인가요?	내 속을 태우는 감정이 있나요? 열등감이든 질투심이든 뭐든 좋아요. 있다면 이 자리에서 토해내봅시다.	인생에서 버려도 되는 자존심을 적어볼까요?	준비물 -최대호- 좋은 일, 좋은 사람,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. 좋은 나.	나는 덤벼대는 편인가요? 조심성이 많은 편인가요?	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나요? 어떤 일이었나요?	나는 스스로와 남들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인가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□ 12	□ 13	□ 14	□ 15	□ 16	□ 17	□ 18
일을 시작하기 전, 생각이 많은 편인가요? 일단 저지르고 보는 편인가요?	행복이 남을 통해 찾아오는 거라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나요? 나를 위해 남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면요.	고칠 수도, 고쳐서도 안 되는 나의 개성을 적어봅시다.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까지 인정할 필요 없잖아요.	행복한 사람들은 오해를 잘 하지 않는다.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관대하다.	나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나요?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하나요?	나는 쉴 때 많은 것을 하는 편인가요? 한없이 늘어지는 편인가요?	나는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데 능숙한 편인가요?
□ 19	□ 20	□ 21	□ 22	□ 23	□ 24	□ 25
고치고 싶은 말버릇이 있나요? 가지고 싶은 말버릇은요? 지속하다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.	좋은 적이란 과연 존재할까요?	주변 사람이 다 이상해보인다면 자신에게 정신적 노안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.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들로 넘쳐난다.	나는 남을 잘 믿는 사람인가요?	나는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가요?	나는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능숙하나요?	나를 무너뜨리는 것도, 일으키는 것도 말입니다. 어려운 일을 앞둔 나, 혹은 타인에게 해줄 조언을 적어봅시다.
□ 26	□ 27	□ 28	□ 29	□ 30	□ 31	
대인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. 그러나 삶의 기쁨도 행복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.	종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, 어떻게 행동하나요?	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? 어떤 일이었나요?	자서전을 쓴다면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싶나요?	너는 가시가 있든 없든 스피노야. -가시투성이 스피노-	나는 압박이 느껴져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편인가요?	